

통일신라시대 화장묘 연구

손 병 국*

< 차 >

- I.
- II. 통일신라시대 화장묘의 제 양상
- III. 통일신라시대 화장묘의 성격과 그 특징
- IV. 맺음말

국문요약

논문은 통일신라시대 여러 매장방식 중 특수성이 높은 화장묘에 관한 연구이다. 통일신라시대 화장묘는 다른 시대에 비해 유적에서 확인된 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연구가 미흡하였다. 이는 화장묘의 단순한 형태적 구조와 기년자료 및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판정기준이 불명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새로운 자료와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통일신라시대 화장묘의 입지와 구조유형, 그리고 문헌자료를 통한 화장 추이 등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특징과 지역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화장묘의 조성배경과 변천과정 및 피장자의 성격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우선 왕도와 지방에서 확인된 화장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구조유형은 크게 단일형(I형)과 이중형(II형)으로 구분되며, 이는 단일형인 토광형(IA), 토기형(IB), 석곽형(IC), 이중형인 석관형(IIA), 토기형(IIIB), 석함형(IIIC)으로 세분된다.

이러한 왕도와 지방에서 확인된 화장묘의 변천과정은 6세기 후엽 또는 7세기대에 들어와 왕도에서 화장묘가 등장하며, 8세기대에 다양한 구조유형과 專用장

논문은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統一新羅時代 火葬墓 研究』, 2015) 내용 중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게재함을 밝힌다.

* (재)동서문물연구원 연구원

확인되어 이 시기에 화장이 성행하였음이 추정된다. 또한 8~9세기대에 들어와 지방까지 화장묘의 조성이 확대되었다. 화장묘의 구조 및 장골기의 재질 등에 있어 8세기 후엽부터는 왕도와 지방 간의 차이가 나타나며, 9세기대에 들어 오면서 그 차이가 더욱 깊어졌다고 볼 수 있다. 화장묘가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하면서 군집한 예가 지방에 분포하는 점을 통해 지방에서 화장묘를 군집하여 조성하는 모습은 9세기 특징으로 보인다.

피장자는 문헌기록을 보면 왕, 승려, 육두품 계층으로 요약된다. 본고에서는 장법과 화장묘의 구조 및 장골기의 구성, 인골 출토여부를 분석한 결과 일반민이 아닌 당시 일정 이상의 경제력과 신분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유력층으로 추정되며, 문헌기록과 인골 분석자료를 통해 당시 남녀구분 없이 화장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통일신라, 장법, 묘제, 화장, 화장묘(火葬墓), 장골기(藏骨器)

I. 머리말

시신을 처리하는 장법 중 하나인 화장(火葬)은 과거의 매장방식 중 일부를 알 수 있는 연구대상이며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중세로 전환하는 과도기인 통일신라시대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정치적 안정과 문화적 번영을 이룩하였다. 6세기 중후반을 지나면서 신라인들의 묘제는 기존의 적석목곽분과는 장법과 구조가 다른 횡혈식석실분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신라인들의 기존 사생관(死生觀)에 불교문화가 습합(習合)되면서 장법과 묘제 등이 간소화 되는 박장(薄葬)개념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삼국 통일을 전후로 하여 화장이 시행됨에 따라 화장묘(火葬墓)의 조성과 장골기(藏骨器)의 제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최근 들어 화장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¹⁾은 사회적 여건과 함께 화장에 대한 여러 분야의 연구가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화장에 관한 연구는 문헌뿐만 아니라 고고학 분야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통일신라시대 화장묘 연구는 일제 강점기 일인(日人)연구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체계적인 학술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수습된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구체적인 분석에 한계가 있다.

해방 이후 1970년대에 들어와 백제와 신라지역에 대한 유적 발굴조사가 본격화 되면서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되어 화장묘에 대한 인식이 확대 되었고, 새로운 자료 발굴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자료가 빈약하여 유물 전체에 대한 검토

1) 火葬 후 수습한 遺骨을 담은 용기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骨壺, 骨藏器, 藏骨器 등 표현을 달리하여 용어의 定立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藏骨器」의 명칭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2) 2013년도 전국 화장률이 76.9%로 최종 집계 되었다. 이는 20년 전인 1993년도 화장률 19.1%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0년 화장률 74.0%보다 2.9%p 높아진 것이다.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 “사망자 5명 중 3.9명 火葬!”, 2014. 10. 21.

3) 齊藤忠, 「新羅火葬骨壺考」, 『考古學論叢』2, 1936; 「新羅文化論考」, 吉川弘文館, 1973; 有光教一, 「慶州忠孝里石室古墳調査報告書」, 『昭和七年度古蹟調査報告』2, 朝鮮總督府, 1937.

1. 4) 강인구, 「百濟의 火葬墓 - 새로운 百濟墓制-」, 『考古美術』115, 한국미술사학회, 1972; 「百濟의 火葬墓(續)」, 『美術資料』17, 국립중앙박물관, 1974; 「百濟의 火葬墳墓」, 『百濟古墳研究』, 一志社, 1977; 한병삼, 「土器」, 『韓國의 美』5, 中央日報社, 1981; 김원룡, 「統一新羅土器」, 『韓國史論』15, 國史編纂委員會, 1985; 『韓國考古學概說』, 一志社, 1989; 「신라 통일시대의 고분」, 『한국의 고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부족하였고, 대부분 단편적인 소개를 하는 것에 그쳤다.

이후 신라시대 화장묘와 장골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정길자에 의해 진행되었다. 일련의 연구⁵⁾에서 경주지역에서 수습된 장골기와 절대기년자료 등을 분석하여 신라시대의 화장과 장골기의 발생을 재고(再考)하였다. 분석대상 중 화장묘로 분류하기 어려운 자료와 수습된 자료를 중심으로 비교연구가 이루어져 장골기의 편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긴 했지만 통일신라시대 화장묘 및 장골기의 실상과 불교문화와의 관련성을 밝히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이후 활발한 국토개발로 인해 발굴조사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면서 신라 왕도(王都)인 경주지역과 지방(地方)에서 조사 사례가 축적됨에 따라 화장묘 및 장골기에 대한 심화 연구가 진행되었다. 경주지역에 대한 화장묘의 구조분석과 검토⁶⁾가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지방에서 화장묘의 발굴조사 사례가 증가하면서 왕도와 지방의 화장묘에 대한 비교연구 및 개별지역의 화장묘에 대한 연구⁷⁾도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백제시대의 화장묘에 대한 재검토⁸⁾와 불교와 화장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연구⁹⁾도 진행되었다. 한편 일본 고대 화장묘의 계보를 밝히기 위해 한반도에서 확인되는 화장묘의 구조와 시기 등을 분석하여 비교연구¹⁰⁾도 이루어졌다.

기왕의 연구 성과를 검토한 결과 통일신라시대 화장묘에 대한 발굴조사 사

-
- 5) 정길자, 「新羅藏骨容器研究」, 『韓國考古學報』8, 韓國考古學研究會, 1980; 「韓國佛僧의 傳統葬法研究」, 『崇實史學』4, 숭실대학교 사학회, 1986; 『新羅時代의 火葬骨藏土器 研究』,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6) 김호상·김재현, 「新羅王京 所在 火葬墓의 構造와 出土人骨分析」, 『新羅文化祭學術發表論文集』2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5; 홍보식, 「통일신라의 장·묘제」, 『第28回 韓國考古學會 全國大會: 統一新羅 考古學』, 韓國考古學會, 2004; 「통일신라 연결고리유개호의 발생과 전개」, 『韓國上古史學報』51, 韓國上古史學會, 2005; 「신라의 화장묘 수용과 전개」, 『韓國上古史學報』58, 韓國上古史學會, 2007a; 석병철, 「統一新羅 慶州地域 火葬墓 研究」, 경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경주지역 新羅 火葬墓에 대하여」, 『新羅史學報』9, 新羅史學會, 2007.
- 7) 홍보식, 「통일신라 화장묘 造營層과 地方 擴散」, 『考古廣場』創刊號, 釜山考古學研究會, 2007b; 최신영, 「통일신라시대 火葬墓 연구: 울산지역의 최근 성과를 중심으로」, 『大東考古』5, 대동문화재단연구원, 2010.
- 8) 山本孝文, 「百濟 火葬墓에 대한 考察」, 『韓國考古學報』50, 韓國考古學會, 2003.
- 9) 엄기표, 「新羅 僧侶들의 葬禮法과 石造浮屠」, 『文化史學』18, 한국문화사학회, 2002; 「高麗時代 石造浮屠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차순철, 「통일신라의 화장과 불교와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고찰: 造寺·造塔신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文化財』41-1,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 10) 森本徹, 「韓國における初期火葬墓の研究」, 『青丘學術論叢』14, 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1998; 小田裕樹, 「한일 고대火葬墓의 비교연구: 일본 고대火葬墓의 系譜를 둘러싸고」, 『한일문화재 논집』2,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증가와 함께 다양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당시의 한 묘제로서 주목하고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방에서 조사된 화장묘 자료가 축적되고 있으나, 대부분 신라 왕도인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상기의 통일신라시대 화장묘에 대한 연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그 동안 통일신라시대 화장묘는 발굴조사 사례가 적고, 대부분 수습에 의해 확인된 장골기가 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인식의 부족과 구조만을 통해 수혈 또는 의례 목적의 유구로 추정된 경우도 있다. 이는 최근 왕도와 지방에서 화장묘의 발굴조사 사례가 축적되고 있으므로, 화장묘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검토와 정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기존의 화장묘 입지와 구조유형에 대해 왕도와 지방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후 화장묘의 전체적인 양상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는 현재까지 조사된 화장묘의 입지와 구조 그리고 장골기의 형식학적 속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지역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불교의 영향으로 인하여 화장묘가 통일신라시대의 한 묘제로서 성행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통일신라시대 정치·사회적 상황과 당시 신라인들의 사생관 등과의 연관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이며, 피장자의 성격 등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다. 이는 당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사적으로 종합하여 화장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자들의 개별연구 성과를 밑바탕으로 왕도와 지방에 조성된 통일신라시대 화장묘를 중심으로 입지와 구조유형 분류 및 장골기의 형식학적 분류를 통해 지역성을 파악하고, 이와 함께 문헌자료에 나타난 화장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화장묘의 조성배경과 변천과정 그리고 피장자의 성격 등 여러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II. 통일신라시대 화장묘의 제 양상

1. 중요유적의 현황과 출토 양상

통일신라시대 화장묘는 왕도를 중심으로 확인되었으나, 최근 발굴조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여러 지방의 유적에서 장골기와 함께 확인되고 있다. 남한지역에서 발행된 발굴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상유적은 다음의 표 1과 같이 54개소 유적의 147개 유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적에서 조사된 화장묘를 모두 분

것을 기본으로 하되, 유구의 속성이 불명확한 자료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1. 통일신라시대 화장묘 현황

	지역	유적명	기수	전거
1	경주 (왕도)	충효동 6호 석실분	1	有光教一, 1937.
2		충효동 3호 석실분 봉토	1	有光教一, 1937.
3		남산 관석사벽의 방형화장묘	1	齊藤忠, 1938.
4		동천동 출토 청동방형사리합	1	통도사성보박물관 2000.
5		조양동 화장묘	1	월간문화재사, 1973.
6		천마총 봉토	1	문화재관리국, 1974.
7		황남대총 북분 봉토	1	문화재연구소, 1985.
8		“元和十年”銘 藏骨器	1	국립경주박물관, 1985.
9		동국대 교내 학생회관 신축부지유적	1	이희준, 1992.
10		동천동 산 13번지 출토 화장묘	1	국립경주박물관, 1995.
11		화곡리 화장묘	1	한도식, 2009.
12		동국대 교내자연과학관 배수로부지유적	1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 1996.
13		황성동 고분군(545번지)	1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 2002.
14		동국대 교내 학생복지관 부지유적	5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 2004.
15		갑산리유적	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6.
16		황성동 석실분 906-5번지	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5.
17		충효동 송화산 옥녀봉 화장묘	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9.
18		화천리 산 251-1유적	12	영남문화재연구원, 2012.
19		석계리유적	2	중앙문화재연구원, 2013.
20	강원	강릉 입암동유적	1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21	충청	대전 용계동유적	4	중앙문화재연구원, 2011.
22		공주 정지산유적	19	국립공주박물관, 1999.
23		보은 장신리유적	4	충원문화재연구원, 2006.
24	전라	장수 동촌리고분군	2	군산대학교 박물관, 2005.
25	경상	대구 각산동 912-6번지 유적	1	영남문화재연구원, 2008.
26		청도 사촌리유적	2	김상면, 1990.
27		김천 모암동유적	1	영남문화재연구원, 2003.
28		성주 장학리 장골유적	2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8.
29		영주 청구리고분	1	동양대학교 박물관, 2006.
30		경산 대원리유적Ⅱ	1	한빛문화재연구원, 2011.
31		울산 효문동 죽전곡유적	1	울산문화재연구원, 2004.
32		울산 천소유적	2	울산대학교 박물관, 2004.
33		울산 조일리유적	2	충원문화재연구원, 2005.
34		울산 천상리 평천유적	1	울산문화재연구원, 2005.

	지역	유적명	기수	전거
35	경상	울산 신천동 냉천유적	3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2008.
36		울산 인보리 변답들유적	1	울산문화재연구원, 2005.
37		울산 교동리 192-37유적	1	울산문화재연구원, 2009a.
38		울산 대안리유적	13	울산문화재연구원, 2009b.
39		울산 상연암유적	1	울산문화재연구원, 2010.
40		울산 효문동 산68-1유적	14	대동문화재연구원, 2011.
41		울산 덕신리 572-6유적	1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2011.
42		부산 연산동고분군	1	송계현, 1992.
43		기장 명래유적	1	울산대학교 박물관, 2013.
44		기장 하장안유적	1	부산박물관, 2013.
45		창원 다호리유적	1	국립중앙박물관, 2011.
46		김해 대청유적	4	부산대학교 박물관, 2002.
47		창녕 우강리고분군	2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4.
48		합천 영창리유적	5	경남고고학연구소, 2002.
49		고성 송학동고분군	5	동아대학교 박물관, 2005.
50		진주 무촌리유적	7	국립진주박물관, 1994.
51		진주 무촌리유적2	3	경남고고학연구소, 2004.
52		진주 창촌리유적	1	삼강문화재연구원, 2010.
53		의령 운암리유적	1	우리문화재연구원, 2009.
54		거창 개봉고분군	1	경상대학교 박물관, 2011.

화장묘는 시신을 화장용 장작더미에 놓고 화장한 후 남은 골편(원 골격의 약 40~60%정도)을 수습하여 일정한 의식에 따라 토기 혹은 유기질 용기에 넣어서 소형 수혈에 안치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화장묘의 구조유형 분류에 있어 단일형과 이중형의 예가 왕도와 지방에서 확인되지만,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이와 별도로 왕도에서 봉분 수혈에서 사용시기가 다른 토기가 확인된 경우가 있는데 화장과 관련된 장골기로 보는 견해와 제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는 천마총 봉토와 황남대총 북분 봉토에서 출토된 토기가 해당되며, 이미 조영된 무덤의 봉분에 다른 시기의 유물을 묻은 형태이다. 이러한 행위는 투장(偷葬)¹¹⁾과 유사하며 여러 시대¹²⁾에 걸쳐 나타난다. 따라서 문헌기록과 현존하는 유적에서 출토된 양상으로 보아 당시 신라사회에서 장골기를 투장했을 가능성에 대해 시사해준다.

¹¹⁾偷葬 남의 눈을 속여 타인의 묘지 또는 산림에 매장하는 행위이다. 유사어로 暗葬이 있다(한국고전용어사전 편찬위원회, 『한국고전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¹²⁾신라시대의 경우 『三國遺事』 卷4, 義解 第5, 圓光西學條와 조선시대의 경우 『顯宗實錄』 卷11, 6年 10月 19日(辛未)條에 투장을 한 사례가 확인된다.

화장한 후에 뼈를 수습하여 담은 용기로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가장 일반적인 화장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¹³⁾ 통일신라시대 장골기의 출토양상은 대부분 토기이나 재질과 기종 등이 시기에 따라 다른 형태로 확인되며, 왕도와 지방 간의 지역별 차이가 보인다. 장골기로 사용된 용기는 주로 왕도에서는 유개합, 유개대부완, 연결고리유개호, 연유도기(鉛釉陶器) 등이며, 지방에서는 사각편호, 유개합, 유개대부완, 유개호 등으로 두 지역에서 다양한 재질과 기형이 확인되었다. 장골기를 보호하는 덮개는 토기·자기 등의 뚜껑이 사용되었거나, 예외적으로 기와편·무문전을 보호 덮개로 사용한 경우가 확인된다.

화장묘 내부에 안치된 장골기는 지진구(地鎮具)의 매납방법과 상당한 유사성이 있어 문제가 된다. 사용된 용기로만 보았을 때 서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매납위치 및 내용물에 따라¹⁴⁾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화장묘는 무덤으로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조성되었고, 지진구는 건물 의례와 관련하여 매납된 점에서 구별된다.

무덤의 부장품은 피장자의 성격과 계층 등 당시의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자료이다. 대체로 화장묘에서 부장품 및 내용물이 확인된 사례는 드물지만, 내부에서 확인된 경우도 있다. 통일신라시대 화장묘에서 출토된 부장품 및 내용물은 토제품, 금속류, 인골 등이다.

토제품은 왕도에 위치한 화곡리 화장묘에서 십이지상(十二支像)이 확인되었다. 이 십이지상은 석함(石函)의 주변에 모두 9점이 배치되었다. 장골기의 외호 내면에 십이지 문자를 전면 또는 일부만 음각한 사례¹⁵⁾가 있는데, 이는 경주 화곡리 화장묘에서 출토된 토제십이지상의 배치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다.¹⁶⁾

금속류는 청동괴(靑銅塊)와 불명철편이 확인되었다. 이는 왕도와 지방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 금속류는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아 용도가 불명확하다.

인골은 왕도와 지방인 강원도에서 확인되었다. 왕도에서는 경주 화곡리화장

13) 山本孝文, 논문, 2003, 126쪽.

14) 지진·진단구에 대한 매납위치와 내용물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김성태, 「建物址 出土 地鎮·鎮檀具의 檢討」, 『영남문화재연구』18, 영남문화재연구원, 2005; 최은아, 「경주지역 건물지의 鎮檀具에 관한 고찰」, 『문물연구』11, (재)동아시아문물연구학회 재단·(재)한국문물연구원, 2007; 오셋별, 「지진구와 지진의례: 건물지 지진의례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132,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15) 박방룡, 「新羅十二支銘骨壺에 관한 小攷」, 『新羅文化』7,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0, 191~214쪽.

16) 한도식, 「慶州 花谷里 火葬墓」, 『新羅文物研究』3, 國立慶州博物館, 2009, 105쪽.

,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내 학생복지관 부지유적의 73호 화장묘, 경주 화천리 산251-1유적의 3~5호 석곽묘 등에서 확인되었다. 지방인 강원도에서는 강릉 입암동유적의 화장묘에서 확인되었다. 이들 화장 인골은 화장 당시 사체의 상태, 화장 온도, 습골 여부 등을 알아낼 수 있는 자료로 해당 유구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¹⁷⁷ 경우에 따라서는 정황 해석에 결정적인 정보를¹⁸⁷ 제공한다.

2. 화장묘의 입지와 구조유형 분류

1) 화장묘의 입지

왕도에서 확인된 화장묘는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평지에 입지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평지에 입지한 유적은 천마총 봉토, 황남대총 북분(北墳) 봉토, 황성동 고분군(545번지) 출토 23호 토광, 황성동 석실분 906-5번지 2호 매납유구가 해당된다. 그 중에서 왕경의 중심권에서 멀리 떨어진 평지인 황성동에 위치한 유적이 주목된다. 황성동 석실분 906-5번지는 8세기 전반에 조성되었다. 황성동 일대와 용강동의 서쪽 일대는 7세기 중엽부터 8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무덤이 조성된 점을 중시할 때, 이곳 일대는 8세기 전반까지 계획도시가 조성되지 않고, 묘역으로 이용되었으며, 9세기 전반 이후 이곳이 재정비되면서 도시가 건설되기 시작¹⁸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시기적으로 이곳에서 출토된 화장묘 또한 왕경의 범위에서 벗어난 외곽지역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지에 조성된 유적의 경우 충효동 3호 봉토·6호분, 동천동 화장묘, 화곡리 화장묘, 동국대 교내 출토 화장묘(일괄), 화천리 산251-1유적 등이 해당된다. 왕도의 화장묘는 대부분 산지의 구릉지대에 입지하며, 전(傳)왕릉과 횡혈식석실분이 위치한 가까운 곳에서 확인되는 점에서 분묘의 입지와 관련성이²⁰¹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지배계층의 분묘는 산지를 이용하였는데 왕경 주위의 모든 방향의 산록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왕경 전체로 보았을 때 동쪽과 서쪽지역에

¹⁷⁷ 火葬 人骨 有無는 화장묘와 장골기임을 판단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왕도와 지방에서 확인된 대부분의 화장묘 및 장골기의 내부에서 인골이 확인되지 않아 판단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는 고고자료의 축적과 관련분야와의 협동연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¹⁸⁷ 하대룡, 「인골분석을 통한 장례 방식의 검토 : 불교식 火葬 이전의 선사·고대 火葬 문화의 특성」, 『제3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논문집 : 농업의 고고학』, 한국고고학회, 2012, 390쪽.

¹⁸⁹ 홍보식, 「신라 도성의 건설과 구조」, 『삼국시대 고고학 개론』1, 진인진, 2014, 169~189쪽.

²⁰¹ 석병철, 앞의 논문, 2007, 41~42쪽 참조.

있는 경향을 보인다. 분묘의 경우 6세기 초반부터 왕경의 중심지역을 벗어나 산지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왕경의 중심 지역에 분묘를 조영할 적절한 공간이 부족하였다는 사실²¹⁾과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능묘제도 및 불교사상 등의 영향이²²⁾ 반영된 것으로 화장묘의 입지선정에 특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화장묘의 입지와 분포에 있어서 당시 지배계층의 분묘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왕도의 내부에서 장지간(葬地間) 격차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동쪽과 서쪽이 화장묘의 주된 장지로 선택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동쪽의 경우 신라인들은 토함산을 신라 오악 가운데 동악으로 숭배한 것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서쪽의 경우 불가에서의 서방 극락 정토사상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집양상을 살펴보면 한 곳에 수기 또는 수십기 이상 군집되어 조성된 예로 동국대 교내 학생복지관 부지유적(석장동고분군), 송화산 옥녀봉 화장묘, 화천리 산251-1유적이 해당된다. 특히 동국대 교내 학생복지관 부지유적의 경우 황혈식 석실분과 함께 화장묘가 혼재되어 분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장자들이 동일한 가계 속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²³⁾가 있다. 이와 유사한 화장묘의 군집사례는 최근 경주의 서쪽 관문인 건천읍 일대에서 확인되고 있다. 경주 화천리 산251-1 유적의 경우 삼국시대의 생활유구와 통일신라시대 석실분, 석곽묘, 화장묘인 분묘유구와 유적의 북동쪽에 기와가마인 생산유구가 확인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분묘유구와 생산유구가 구역을 나누어 분포하고 있다. 이 유적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금척리유적의 A지구²⁴⁾에서도 통일신라시대 석곽묘와 석실묘를 비롯하여 화장묘 2기가 확인되어 주목된다. 특히 5호 화장묘에 안치된 장골기의 내부에서 인골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여러 기의 화장묘가 한 지역에서 확인되는 점은 당시 묘지 선정에 있어 일정한 규제가 있었을 것이며, 집단 내 구성원들이 묘역으로 정한 지역에 화장묘를 비롯한 분묘를 군집하여 조성함으로써 자신들의 동일한 혈연 집단 묘역을 설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집단 내에서도 일부만 화장

21) 朴方龍, 『新羅都城』, 2013, 373~374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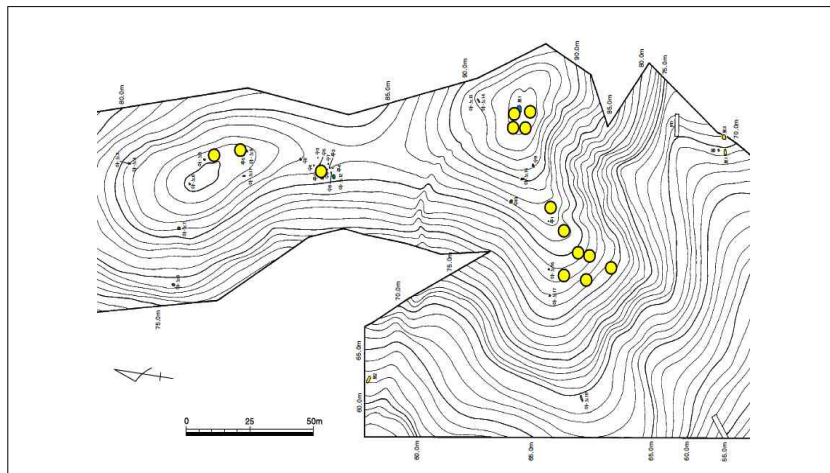
22) 이근직, 『新羅王陵研究』, 학연문화사, 2012, 431쪽 참조.

23) 석장동의 황혈식석실분의 경우는 석장동과 충효동 등의 경우처럼 군집을 이루는데, 이는 동일한 가계의 고분군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군집군 속에서 火葬墓가 황혈식석실분과 같은 묘역에서 병존하고 있다면 동일 가계 속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석병철, 앞의 논문, 2006, 42쪽).

24) (재)울산문화재단연구원, 『울산-포항 복선전철 문화재 제5공구 금척리구역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약보고서』, 2013, 8쪽.

조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당시 특수성이 많은 묘제였음을 알 수 있다.

지방에서 확인된 화장묘 입지의 경우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산지의 경우 세분화를 하면 구릉정상부와 구릉사면부에 위치한 곳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방에 조성된 화장묘 중 고분 등의 분묘가 위치한 곳에서 확인된 점이 주목된다. 그 예로는 유적은 장수 동촌리고분군, 영주 청구리고분, 부산 연산동고분군, 창녕 우강리고분군, 고성 송학동고분군, 거창 개봉고분군의 주변에서 확인된 화장묘가 해당된다. 이는 당시 지방의 묘지 선정에 있어 기존의 분묘 주변에 화장묘를 조성한 것이다. 이들 중 장수 동촌리고분군과 창녕 우강리고분군, 고성 송학동고분군의 주변에서 2기 이상의 화장묘가 군집한 양상이 확인되어 이전부터 장지(葬地)로 인식해온 공간에 여러 기를 조성하였음이 추정된다.



도 1. 울산 효문동 산68-1유적 전체 배치도

군집양상을 살펴보면 5기 이상 집단을 형성하여 조성된 곳이 경상도와 충청도에서 확인되었다. 그 예로는 경상도의 김해 대청유적, 울산 대안리유적, 울산 효문동 산68-1유적, 고성 송학동고분군, 진주 무촌리유적, 합천 영창리유적이 있으며, 충청도의 대전 용계동유적, 공주 정지산유적, 보은 장신리유적 등이 해당된다. 특히 울산 효문동 산68-1유적의 경우 유적 내에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분묘가 조성되지 않고 다수의 화장묘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그룹을 형성하여 구릉정상부에서 사면부로 내려오면서 질서 있게 개별적으로 조성된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예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화장묘를 채용한 계층이 제한되어 있었을

대한 견해²⁵⁾가 있으며, 피장자 사이에 서로 친연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화장묘의 중복이 거의 없어 동일한 혈연 집단의 공동 묘역으로 생각된다.

2) 화장묘의 구조유형 분류

통일신라시대 화장묘의 경우 사용계층이 한정되어 있으며, 단순한 구조로서 체계적인 형식서열 및 변천과정을 설정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현재 단일형 석곽형(IC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에서 장골기가 확인되기 때문에 장골기의 형식분류²⁶⁾를 통해 변천과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화장묘 유형분류안(2015)

유형		유형설명
단일형 (I)	토광형(A)	원형 또는 타원형 수혈을 굴착한 후 내부바닥에 화장한 인골을 안치한 예
	토기형(B)	'U'자형 수혈을 굴착한 후 내부바닥에 장골기를 안치한 예
	석곽형(C)	수혈을 굴착한 후 내부에 석곽을 시설한 후 내부바닥에 인골을 안치한 예
이중형 (II)	석곽형(A)	수혈을 굴착한 후 내부에 석곽을 시설한 후 장골기 또는 목함 등을 안치한 예
	토기형(B)	수혈을 굴착한 후 내부바닥에 외용기 내부에 내용기를 넣어 안치한 예
	석함형(C)	수혈을 굴착한 후 내부바닥에 석함 안에 장골기를 넣어 안치한 예

통일신라시대 화장묘의 구조유형 분석은 정길자(1989), 김호상·김재현(2005), 석병철(2007), 홍보식(2007)에 의해서 검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자들의 유형분류안을 수용 및 일부 수정하여 <표 2>와 같은 유형분류안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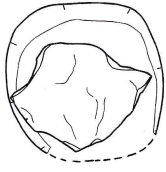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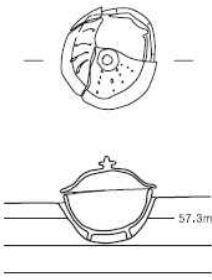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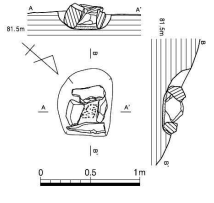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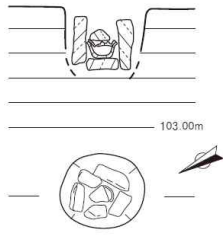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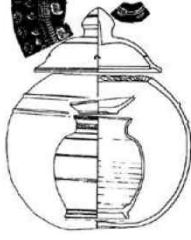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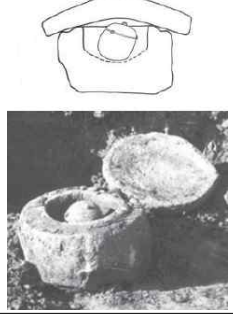
이 유형분류안에서는 홍보식과 석병철의 제안을 따라 크게 단일형(I)과 이중형(II)으로 분류하였다. 세부적으로 단일형인 토광형(IA)과 토기형(IB), 이

²⁵⁾ , 앞의 논문, 2010, 75쪽.

²⁶⁾ 이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홍보식, 앞의 논문, 2005 및 앞의 논문, 2007a; 이동현, 「인화문 유개완 연구: 경주지역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윤상덕, 「6~7세기 경주지역 신라토기 편년」, 『한반도 고대문화 속의 울릉도: 토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10.

토기형(ⅡB)과 석함형(ⅡC)에 대해서는 기존의 유형분류안들에서 표 2와 유사한 기준으로 이미 제시한 경우가 있어 수용하였다.

단일형 석곽형(ⅠC)과 이중형 석곽형(ⅡA)의 명칭은 홍보식의 경우 석곽형으로 제시하였지만, 화장묘에 있어서의 곽(槨)은 인골과 장골기 등을 보호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김호상·김재현, 석병철의 유형분류안을 따라 석곽으로 지칭하였다.

		
<p>ⅠA형 (진주 무촌리 G호)</p>	<p>ⅠB형 (울산 대안리 4호)</p>	<p>ⅠC형 (경주 화천리 3호 석곽)</p>
		
<p>ⅡA형 (대전 용계동 2호)</p>	<p>ⅡB형 (동국대 교내 학생회관 신축부지유적²⁷⁾)</p>	<p>ⅡC형 (경주 화곡리 화장묘)</p>

도 2. Ⅰ·Ⅱ유형 화장묘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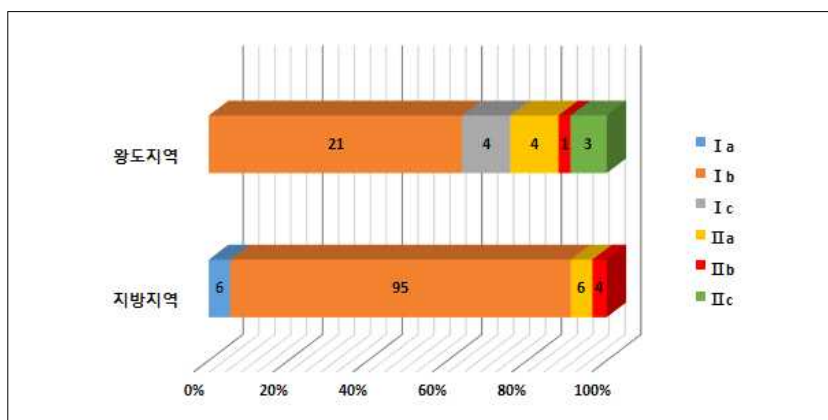
단일형 석곽형(ⅠC)은 석병철의 경우 경주 동국대 구내 학생복지관 부지유적의 62·73호묘를 이중형 석곽형(ⅡB)으로 분류²⁸⁾하여 유형분류안에 제시하지

²⁷⁾ , 앞의 논문, 2007a, 83쪽 재인용.

²⁸⁾ 석병철의 유형분류안(2007)에서 제안된 이중형 석곽형(ⅡB)은 김호상·김재현의 유형분류안(2005)에서 제안된 Ⅰ형과 유사한 기준으로 분류되었다.

, 홍보식의 경우 단일형의 석곽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유형은 내부에 흔적이 남아 있지 않으나 화장한 인골을 직물로 싸거나 목함(木函) 등에 넣어 안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경주 화천리 산251-1유적의 3~5호 석곽묘의 예를 들어 제시하고자 한다.

이중형 석곽형(IIA)은 석곽 내부에 장골기를 안치하는 형식이지만 경주 동국대 교내 학생복지관 부지유적의 73호묘의 경우 보고자에 따르면 인골과 함께 목함의 흔적이 확인되었다고 보고하여 장골기 외에 다른 용기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고려시대의 화장묘의 경우²⁹⁾ 소형석곽 내부에서 화장된 유골과 함께 관정(棺釘)이 출토되어 목관을 골함(骨函)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신라시대 화장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된다면 이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



도 3. 화장묘 구조의 지역별 비율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화장묘의 구조유형 분류는 I 유형과 II 유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지역별 비율을 분석해보면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왕도에서는 IA형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유형이 확인되며, 이중형인 II유형의 비율이 25%로 지방에 비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IC형과 IIc형은 현재까지 왕도에서만 확인된 화장묘의 유형으로, 특히 석재를 이용하여 내부에 장골기 등을 안치할 수 있는 형태의 함(函)을 가공하여

²⁹⁾ 물천리 고려묘군 유적에서 확인된 2·3호 화장묘(聖林文化財研究院, 『慶州 勿川里 高麗 墓群 遺蹟』, 2007)와 영월 삼옥리유적(강원문화재연구소, 『寧越 三玉里遺蹟』, 2010)에서 확인된 3호 석곽묘가 이에 해당된다.

ⅡC형의 경우 지방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예가 없다. 왕도에서만 확인된 예로 보아 왕도 내의 유력층이 사용한 화장묘의 구조로 추정되며, 왕도만의 특수성으로 생각된다.

지방에서는 왕도에서만 확인된 IC형과 ⅡC형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유형이 확인되며, 단일형인 I 유형의 비율이 95%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IA형의 경우 충청도와 경상도에서 각각 2기와 1기가 확인되나 관념상 단순히 화장한 인골을 수혈 내부에 안치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방에서도 이 유형은 성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IB형의 경우 비율을 살펴보면 지방의 모든 지역에서 확인되며, 특히 왕도와 가까운 경상도에 많이 분포한다. 이러한 점은 지방에서 많이 조성된 화장묘의 구조로 추정된다.

이중형인 ⅡA형의 경우 충청도와 경상도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영주 청구리 고분에서 확인된 화장묘는 경주 동천동 화장묘와 구조적인 면에서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지방에서는 이와 유사한 형식이 확인된 예가 소수에 불과하며, 화장묘의 구성면에서 왕도에서 확인된 ⅡA형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채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ⅡB형의 경우 충청도와 경상도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울산 대안리 유적의 10호 화장묘, 창원 다호리유적의 B26-1호의 경우 바닥에 완을 놓고 그 위에 장골기를 중첩(重疊)하여 놓은 형태로 완이 장골기의 외용기의 역할과 유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주 정지산유적의 3호 화장묘의 경우 외·내용기의 형식학적 분류를 통해 지방에서 확인된 화장묘로서는 고급 용기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형은 지방에서도 적은 수가 확인되어 왕도에서 유행한 구조로 추정된다.

왕도와 지방에서 공통적으로 IB형과 ⅡA·B형이 확인된다. 먼저 IB형의 비율을 살펴보면 왕도에서는 61%, 지방에서는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두 지역에서 널리 사용한 구조로 추정되며, 내부에 안치된 장골기를 통해 두 지역 간의 격차가 확인된다. ⅡA형의 비율을 살펴보면 왕도에서는 13%, 지방에서는 3%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왕도에 집중된 화장묘 구조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ⅡB형의 비율을 살펴보면 왕도에서는 3%, 지방에서는 2%를 차지하는데, 왕도의 경우 수습된 자료들을 포함한다면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형식도 ⅡA형과 마찬가지로 왕도에 집중되어 조성된 화장묘 구조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화장묘의 구조유형 분류를 한 결과, 왕도와 지방 간의 공통되는 구조가 존재하나 대체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두 지역 간의 지역성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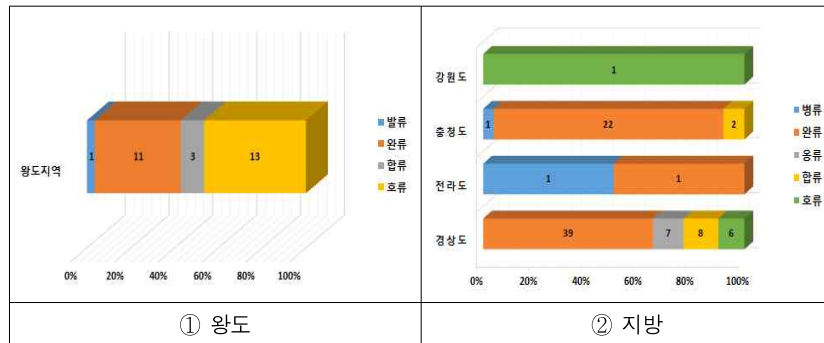
207 , 앞의 논문, 2007b, 322쪽.

3. 장골기의 형식학적 분류

분묘와는 차별된 장법과 외형을 가진 화장묘에서 부장품이 확인된 경우는 거의 없고 화장한 유골을 담은 장골기만 확인된 예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에서 장골기의 형식학적 분류를 분석한다면 묘제의 계층성을 살펴볼 수 있는 속성이라 할 수 있다.

1) 장골기

왕도에서는 I 유형의 B형과 II 유형의 A·B·C형에서 장골기가 확인되었다. IB형과 IIA형에 안치된 장골기 중 대부분이 유개대부완과 유개합을 사용하였다. 대부완은 통일신라시대 토기의 대표적인 기종 중의 하나로, 소형 그릇인 완에 짧은 굽이 부착된 형태이다. 문양시문에 있어 인화문이 시문된 것과 시문되지 않은 것이 있다. 주로 7세기 후반에 유행하기 시작하여 8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6세기에는 기형변화도 단조롭고 수량도 많지 않다.³¹⁾ 8세기 이전에 사용된 장골기는 전용(專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따로 제작하기보다는 생활용기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 4. 통일신라시대 장골기의 기종빈도

IIA형인 동천동 화장묘에 안치된 유개합은 전용장골기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³²⁾ 그러나 경주 방내리고분군에서 이와 유사한 유개합이 부장된 사례가 있어 초기의 장골기는 전용용기를 만들지 않고, 이 시기의 분묘에 부장되는 토기를 사용하였음을³³⁾ 알 수 있다.

31) , 앞의 논문, 2010, 128~129쪽.

32) 森本澈, 앞의 논문, 1998, 23~24쪽.

IB IIC형에 안치된 장골기 중 연결고리유개호는 현재까지 왕도에서만 확인되었다. “원화 10년” 명(元和十年 銘) 장골기는 고리의 구멍에 철선이 남아 있어 화장한 인골을 보호하기 위해 끈으로 결박하였음을 보여주며, 외면에 문양이 없는 무문³³⁾이다. 그리고 뚜껑에 새겨진 “원화 10년” 명 장골기의 연호로 볼 때, 전(傳) 민애왕릉의 피장자를 민애왕(838~839)이 아니라 815년의 이전에 사망한 왕으로 추정한다³⁴⁾ 견해가 있다. 연결고리유개호는 8세기에서 9세기까지 유행한 기종으로 일부를 제외하면 IIB형의 외용기로 주로 사용되었다.

IIC형에 안치된 장골기 중 당시 중국도자기인 당삼채삼족호(唐三彩三足壺)가 확인되는 예는 경주 조양동 화장묘³⁵⁾로 현재까지 왕도에서만 확인되었다. 중국지역에서 당삼채를 생산하고 소비했던 곳이 장안(長安)과 낙양(洛陽)으로 당(唐)의 정치적·경제적 중심지로서 통일신라 당시 공식사절단의 목적지였기 때문에 당삼채가 신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재 왕도에서 출토된 당삼채는 대부분 생활용기인 접이 특징이다.³⁷⁾ 이러한 연유도기를 장골기로 사용한 경우 8세기를 중심으로 확인된다. 출토된 예가 소수이며, 왕도에서만 확인된 접에서 당시 일부 특수 계층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지방에서는 I 유형의 B형과 II 유형의 A·B형에서 장골기가 확인되었다. 통일신라시대 지방에서 장골기로 사용한 기종은 왕도와 마찬가지로 유개합, 유개완, 유개대부완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당시 생활용기인 옹과 호를 사용한 예도 확인된다. 옹과 호는 당시 다른 묘제의 부장품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생활유적에서 다수 확인된 기종으로 생활용기라 할 수 있다. 옹을 안치한 예는 진주 무촌리 2지구 48호, 청도 사촌리 2호, 창녕 우강리 2호, 김천 모암동, 성주 장학리 장골유적 등이 해당되며, 대부분 경상도에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옹은 대부분 IB형

³³⁾ , 앞의 논문, 2007a, 98쪽.

³⁴⁾ “원화 10년”명 장골기에 문양이 시문되지 않았으므로 이 시기를 경계로 통일신라토기에 인화문이 시문되지 않기 때문에 9세기 전반 이후부터를 비인화문기로 설정한 견해가 있으나, 연결고리유개호에 문양이 시문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이 기종이 청동사리용기를 모방하면서 문양이 없는 특징을 그대로 변안했기 때문이지 통일신라토기에 인화문이 시문되지 않는 제작 및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홍보식 외, 『統一新羅時代 歷年代 資料集』, 학연문화사, 2013, 70~71쪽).

³⁵⁾ 이근직, 앞의 책, 2012, 412~414쪽.

³⁶⁾ 일본 와카야마현 이치사토야마(一里山)묘의 경우도 석제 외함내에 나라삼채의 장골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 삼채, 동완을 사용하는 예가 다수 보인다. 신라와 일본의 화장묘에는 이와 같은 공통점이 있으나 물론 차이점도 보인다. 그러나 삼채, 동완과 특수한 용기를 석제 외함속에 매납하는 공통점이 보이는 것이 흥미롭다(박천수, 「신라와 일본」, 『新羅考古學概論』上, 진인진, 2014, 482쪽).

³⁷⁾ 오기영, 「統一新羅時代 印花文陶器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65~66쪽.

안치되었지만 II A형인 성주 장학리 장골유적의 1호 화장묘에도 장골기로 안치하였다. 특히 동체외면에 평행타날 또는 승문타날이 베풀어진 옹은 당시 식생활과 관련된 용기로서 화장묘의 장골기로 사용된 점은 생활용기를 전용(轉用)하였음을 보여준다.

파수부옹을 안치한 예는 울산 대안리유적의 5·12호 화장묘, 김해 대청유적의 3호 화장묘 등이 해당되며, 왕도보다는 지방에서 장골기로 많이 사용된 기종으로 경상도에서 다수가 확인되며, 모두 IB형에서 안치되었다.

호는 액체 또는 고체의 식량을 담는 저장용으로, 부산 연산동고분군과 강릉 입암동유적의 화장묘에서 장골기로 확인된 편구형장경호³⁸⁾와 사각편호가 주목된다. 현재까지 왕도에서 호를 장골기로 사용한 경우가 있으나 편구형장경호 또는 편호를 사용한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³⁹⁾ 편구형장경호는 6세기 후반의 신라 횡혈식석실분과 같은 분묘유적에서도 출토되므로 화장묘에 안치되는 기종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주 충효동 고분군의 9호분에서 출토된 청동계병이 이와 유사한 기형으로 중국 도자기의 영향보다는 금속기의 영향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⁴⁰⁾는 견해가 있다.

생활용기는 경주 금척리유적의 A지구 5호 화장묘에 안치된 도질옹과 강릉 입암동유적의 화장묘에 안치된 사각편호의 내부에서 화장한 인골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왕도와 지방에서 장골기로 사용하였음은 분명하다.

2) 보호 덮개

장골기의 보호 덮개로 사용된 것을 살펴보면 토기류가 가장 많이 확인되었고, 다음으로 기와류, 석재류, 전류 등이 나타난다.

토기류는 대부분 전 지역에 걸쳐 개(蓋)와 장골용기로 세트화한 것으로 그 중 개는 장골기의 보호 덮개로 사용한 경우이다. 특히 지방에서 확인된 토기 뚜껑은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굽형 꼭지가 부착되었다. 왕도에 조성된 화장묘의 장골기에 사용되지 않았고, 지방에 조성된 화장묘의 장골기 뚜껑으로만 사용⁴¹⁾되었다. 이 외에 호와 파수부옹 등의 생활용기를 깨뜨려 보호 덮개로 재활용

38) 偏球瓶이라고도 부른다(최병현, 「신라 후기양식토기의 편년」, 『嶺南考古學』 59, 嶺南考古學會, 2011, 130~132쪽 참조).

39) 통일신라 후기 壺는 장골기로 사용되거나 고분에서 출토된 예는 드물며, 대부분 생활유적에서 출토되었다(김석기, 「慶州 出土 統一新羅 後期 壺에 관한 研究」, 경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26쪽).

40) 이지희, 「統一新羅時代 鉛釉陶器 研究」, 忠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2, 75쪽 참조.

41) 홍보식, 앞의 논문, 2007a, 333쪽.

경우가 확인되는데 이는 장골용기와 서로 세트를 이루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경주 동국대 교내 학생회관 신축부지유적에서 발견된 II B형의 화장묘에서 내호(內壺)의 보호 덮개로 낮고 폭이 넓은 해무리굽을 가진 청자완(靑磁碗)을 사용하였다. 이 청자완의 경우 당시 생활용기로도 사용된 기종이면서 장골기의 뚜껑으로 사용된 점에서 주목된다.

석재류는 할석을 이용한 경우와 납석⁴²⁾을 가공하여 뚜껑을 제작한 경우가 있다. 공주 정지산유적 9호 화장묘는 IB형으로 수혈 내부에 납석제 뚜껑을 사용한 용계완이 안치되었다. 8세기 이후 신라의 납석제 공예품제작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납석제가 사리장엄구에도 활용되기 시작했고, 통일신라시대 납석제사리호가 대부분 9세기 후반에 집중되는 점을 통해⁴³⁾ 볼 때 장골기에도 납석이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보호 덮개가 함께 출토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애초에 덮개가 없이 안치된 것이 아니라 조사 당시 소실되었거나 나무나 직물 등과 같은 유기질제 덮개를 사용하여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부식되어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주 화곡리 화장묘에서 장골기로 사용된 연결고리유개호의 외면에 직유질(纖維質)로 보이는 유기질 흔적이 남아 있는 예⁴⁴⁾로 보아 유기질제 덮개가 사용되었음이 추정된다.

장골기의 보호 덮개는 대부분 생활용기가 전용(轉用)된 경우가 많으나, 용기가 아닌 무문전(無紋塼)과 기와를 보호 덮개로 사용한 예도 있다. 무문전을 장골기의 보호 덮개로 사용한 예는 경주 동국대 교내 자연과학관 배수로부지유적의 화장묘가 해당된다. 이 화장묘는 IB형으로 양이부호를 장골기로 사용하였고 그 위에 무문전을 덮은 상태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기와를 장골기의 보호 덮개로 사용한 예는 대전 용계동유적의 4호 화장묘, 울산 교동리 192-37유적, 울산 효문동 산68-1유적의 6호 화장묘가 해당된다. 당시 기와는 국가적인 조영사업의 일환으로 생산·관리되었으며,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중심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42) 다른 석재에 비해 견고하지는 않지만 가공하기 쉽다는 장점으로 인해 선사시대부터 사용되었다. 삼국시대 이후 불상조각을 비롯한 공예품의 재료로 납석의 사용이 증가하는 것은 재질 특유의 표면광택이 작품의 장식적 효과를 극대화 시켜주기 때문이다(한정호, 『통일신라시대 蠟石製舍利壺의 발생과 전개에 대한 고찰』, 『古文化』77,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11, 60쪽).

43) 한정호, 앞의 논문, 2011, 62·73~76쪽.

44) 장골기의 내부에 火葬한 뒤 奉安한 遺骨이 가득 담겨져 있었으며, 외면에는 纖維質로 보이는 有機質 痕跡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는데, 올이 가늘고 촘촘하게 織造된 것이다. 이 유기질 흔적으로 보아 연결고리유개호를 당초에는 보자기에 싸서 석함 속에 넣었던 것으로 보인다(한도식, 앞의 논문, 2009, 102~103쪽).

조성된 화장묘 중 울산지역의 경우 기와를 장골기의 보호덮개로 사용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다. 울산지역은 왕도인 경주지역과 인접하여 일찍부터 관부(官府)건축이 조영(造營)되어 기와가 발달⁴⁵⁾하였다. 그리고 8세기 이후부터는 울산지역에도 기와가마터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자체적인 생산과 공급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⁴⁶⁾ 화장묘 조성 당시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와를 보호 덮개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무문전과 기와는 건축부재로서 건축물의 경관과 치장을 위해 사용되었다. 경주 천북면 북군리 산 1번지에서 가형장골기(家形藏骨器)가 수습되었는데, 이는 장골기를 기와집이라는 소재로 삼아 제작한 것으로 사자(死者)의 영혼이 기와집에서 편히 안주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⁴⁷⁾이다. 즉, 이러한 예로 보아 건축부재로 사용되는 무문전과 기와를 보호 덮개로 사용한 장골기 또한 죽은 자의 집 또는 건축물을 상징한 것으로 보이며, 무덤을 ‘사자(死者)의 집’이라 보아온 관념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출토 사례가 많지 않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더 많은 자료가 축적되고, 활발한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그 의미가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

Ⅲ. 통일신라시대 화장묘의 성격과 그 특징

1. 화장묘의 조성배경

통일신라시대 화장은 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당시 화장의 시행과 화장묘의 조성배경은 불교적인 요인을 비롯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사회 전반적인 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우선 종교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반도에서 화장과 유사한 사례가 나타난 것은 신석기시대⁴⁸⁾부터이며, 불교가 수용되는 4~5세기 이후부터는 불교

⁴⁵⁾ , 『蔚山の 신라기와』, 『울산대곡박물관개관기념 공동학술대회 : 유적과 유물로 본 울산의 생산과 유통』, 울산광역시·한국문화보호재단, 2009, 19쪽.

⁴⁶⁾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방리유적』2, 2002.

⁴⁷⁾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검색 <http://www.museum.go.kr/>

⁴⁸⁾ 신석기시대 火葬과 관련하여 다음 보고서와 논문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金宰賢 외, 『상촌리유적 출토인골에 대하여』, 『晋州上村里先史遺蹟』, 東亞大學校 博物館, 2001 ; 金宰賢, 『부산, 경남지역 고대 장송문화의 정체성과 접변양상』, 『석당논총』37,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06 ; 『제주 삼화택지개발지구 가-2구역(2차)내 유적 출토 인골에 대한 소견』, 『제주 삼화지구유

화장이 성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고대인들은 삶과 죽음을 단절로서가 아니라 연속으로 보았다. 그들은 유한한 생명의 관념적 연장형태로서 사후세계를 믿었다. 비록 육체는 죽더라도 영혼만은 멸하지 않고 살아 있는 것으로 믿었다.⁴⁹⁾ 이러한 계세적 세계관은 4~5세기대에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변화를 가져왔다. 신앙과 의례는 공존의 대상이므로 불교에서는 현재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내세를 살아간다는 윤회사상에 근거하여 화장을 하였다. 윤회설에 바탕을 둔 불교의 화장은 죽은 후 영혼의 지위가 현재와 같거나 무덤에 머문다는 신라인들의 전통적 사후관념에 변화⁵⁰⁾를 주었다.

8세기대의 화장묘는 당시 선종의 본격적인 전래 이전이므로 교종(敎宗)과 관련된다. 이때 교종 가운데 가장 유행했던 것은 화엄종과 법상종을 들 수가 있다. 당시 불교를 크게 보면 화엄종은 신라 외곽지역에 있었고, 경주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9세기대⁵¹⁾이다. 이러한 점을 들어 화엄종이 경주지역에서 조성된 화장묘와는 관련성이 적으며, 8세기대에 법상종이 유행하므로 화장과의 연관성이 적지 않다는⁵²⁾ 견해가 있다.

선종(禪宗)의 경우 9세기대에 당에서 유입되면서 당시 승려층에서 전통적인 장법과 함께 화장을 채용하였다. 당시 입적한 고승의 시신을 화장한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선종 승려들의 화장사례를 통해 화장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이후 승려층에 화장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화장이 선종과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당시 신라인들은 조상을 편히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 관념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시신을 불에 태우는 행위는 후손으로서 차마 실시하지 못할 이질적인 장법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리고 화장의 수용은 불법(佛法)과 교리(敎理)를 따르는 승려층에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졌을 것⁵³⁾이며, 이후 유력한 신도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헌자료와 탐비를 통해 장법(葬法)을 살펴본 결과⁵⁴⁾ 화장을 한 예와 그렇지 않은 예를 확인했다. 화장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 가-2지역(2차)내 유적』, 동양문물연구원, 2011.

49) 유초하 외, 『한국인의 생사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7, 56쪽.

50) 채미하, 「한국 고대의 죽음과 喪·祭禮」, 『한국고대사연구』65, 한국고대사학회, 2012, 44쪽 참조.

51) 김창호, 「신라 橫穴式石室墳의 등장과 소멸」, 『新羅史學報』8, 新羅史學會, 2006, 66쪽.

52) 석병철, 앞의 논문, 2006, 56쪽.

53) 구미래, 「불교 전래에 따른 火葬의 수용양상과 변화요인」, 『실천민속학연구』4, 실천민속학회, 2002, 129쪽.

54) 문헌자료인 『三國史記』, 『三國遺事』와 여러 金石文을 통해 신라시대의 화장 추이를 분석한 결과, 국왕 8명, 승려 5명, 육두품 2명으로 총 15명이 葬法으로 화장을 선택하여 실시한 점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장묘를 조성하거나 산골을 실시한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배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통일신라시대에 화장이 실시된 배경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자세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가까운 시기인 고려시대의 경우 묘지명(墓誌銘)과 『高麗史』를 통해 당시 화장을 실시한 사례와 배경에 대해 기록되어 있어 이와 함께 분석한다면 대략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고려시대 화장을 실시한 배경에 대해 정길자는 8가지 유형⁵⁵⁷으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정형철이 재검토하여 크게 4가지 유형⁵⁶⁷을 제시하였다. 두 견해를 통해 정리해보면, 첫째, 효성왕, 선덕왕, 진성왕, 효공왕의 사례를 통해 후손이 없는 경우에 화장을 실시했음을 알 수 있다. 효성왕과 선덕왕⁵⁵⁷의 경우 모두 후사(後嗣)가 없이 흥거한 뒤 화장한 후 동해에 산골을 실시하였고, 진성왕의 경우도 산골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는 왕릉(王陵)을 조성하더라도 후사(後嗣)가 없어 관리의 어려움과 제의(祭儀)를 행할 후손의 부재로 화장한 후 산골을 실시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문무왕, 효성왕, 원성왕의 사례를 통해 화장할 것을 유언(遺言)으로 남긴 경우에 화장을 실시했음을 알 수 있다. 문무왕은 유언을 통해 자신에 대한 장법 및 묘의 조성에 대한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지배층의 사생관을 엿볼 수 있다. 비록 삼국통일을 이룩한 왕이지만 자신의 장례에 있어서는 검약함을 당부하였다. 삼국통일전쟁을 수행하면서 신라의 막대한 재화(財貨)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문무왕 스스로가 검소한 장례를 채택하였다고⁵⁶⁷ 추정된다. 다만 문무왕은 불교식 화장을 실시하였지만, 내세적 관점이 아

(孫炳國, 앞의 논문, 2015, 73~83쪽 참조).

⁵⁵⁷ 그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①피난지에서 부하에게 殺害된 毅宗의 사례, ②後嗣가 없는 사례, ③전투지에서 病死한 사례, ④任地에서 사망하여 火葬한 사례, ⑤火葬을 遺言으로 남긴 사례, ⑥他國에서 사망하여 火葬한 사례, ⑦범에게 잡아먹혀 화장한 사례, ⑧極樂往生을 기원하여 火葬한 사례를 통해 8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정길자, 「高麗時代 火葬에 대한 考察」, 『釜山史學』7, 1983, 29~75쪽.

⁵⁶⁷ 그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①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火葬을 한 경우, ②後孫이 없는 王族의 경우, ③家門의 영향, ④火葬할 것을 遺言으로 남긴 경우 및 後孫이 佛敎를 信奉하였던 경우를 통해 4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하여 제시하였다(정형철, 『고려시대 火葬에 대한 재검토』,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21~32쪽).

⁵⁵⁷ 하대 왕통의 경우 해공왕 말년의 정변으로 왕위를 계승한 선덕왕 薨去 이후 원성왕이 즉위하였다. 당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인물은 김주원이었으나, 중대 왕실과 관련이 없는 김경신이 귀족의 합의에 의해 원성왕이 추대되는 형식을 취하여 계승하였다(선석열, 「신라의 왕위계승 원리」, 『역사와 세계』32, 효원사학회, 2007, 23쪽). 당시 정치적 상황과 후사가 없었던 선덕왕의 경우 유명을 내려 화장을 선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세적 관점으로 죽음을 인식하고 있음⁵⁸⁾을 알 수 있다.

후손들에 의해 치러지는 장례의 경우 당사자의 유언이 없다면 시신을 태워 장례를 치루는 것은 자칫 불경스러운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 왕들은 강력한 유언을 통해 후손들에 대한 배려와 장법 선택에 대한 문제를 해결⁶⁰⁾하고자 했을 것이다.

셋째, 문무왕, 효성왕, 선덕왕, 원성왕의 사례를 통해 당시 질병으로 인해 흉거한 경우 화장을 실시했음을 알 수 있다. 국왕으로서 최초로 화장을 한 문무왕의 사인(死因)은 고질(痼疾)이며, 효성왕과 선덕왕 또한 병환(病患)으로 흉거하자 화장을 실시한 후 동해에 산골을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성왕은 승복사비에 의하면 죽음 직전에 인산(因山)을 명했고 그해에 붕어(崩御)하였으므로 이미 죽음을 예견하였으며, 사인이 숙환이 아닌 병환이었을 것으로⁶¹⁾ 추정된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오랜 전쟁 및 당군(唐軍)의 주둔과 8세기대 활발한 대외 교류 등으로 인해 새로운 질병이 유입되었을 것이며⁶²⁾ 이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신라인들의 위생관념이 발달하였을 것⁶³⁾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청정의 의미 또는 정화의 의미를 가진 불을 이용한 장법인 화장을 통해 전염병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고자 했을 것이며, 화장을 위생 처리방법⁶⁴⁾으로 인식해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보인다.

넷째, 김지성의 사례를 통해 후손(後孫)이 불교를 신봉하여 화장을 실시했음을 알 수 있다. 김지성은 719년경에 감산사를 세우고 그 불당에 아미타불상과 미륵보살상을 모셨다. 두 상을 만들 때 그의 나이 68세로 단순히 부모를 추모하기 위한 의미와 함께 스스로 삶의 마감을 앞두고, 은혜 입은 부모와 고관, 인연 있던 친지들에게 공덕을 돌리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⁶⁵⁾으로 보인다. 『瑜伽師地論』

58) , 앞의 논문, 2006, 57쪽.

59) 정효운, “삼국사기에 나타난 한국인의 사생관”, 『동북아문화연구』40,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4, 174~175쪽.

60) 구미래, 앞의 논문, 2002, 130쪽.

61) 이근직, 앞의 책, 2012, 426~427쪽.

62) 이현숙, 「질병, 치료, 종교 : 한국 고대 불교의학」, 『한국사상과 문화』48,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150쪽.

63) 일본의 경우 8세기에 위생상의 이유로 화장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노래가 『万葉集』에 실려있다 (김시덕, 「일본의 화장, 불교식 장례 : 그 흐름과 변화」, 『불교학연구』16, 불교학연구회, 2007, 195쪽).

64) 질병의 원인을 여러 가지 귀신이 몸에 들어와 생기는 것으로 파악하던 전통사회에서는 특히 전염병이 돌면 그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환자의 물건을 불에 태우는 방법을 널리 사용하여 결과적으로는 오늘날의 위생 처리 효과를 얻기도 하였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0, 1991, 482~489쪽).

읽을 정도로 불교를 신봉한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화장에 대한 거리낌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통일신라시대에는 화장이 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개인이 장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행되었다기보다는 특수한 상황일 경우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추정되며 화장묘의 조성 또한 이와 함께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2. 화장묘의 변천과정

변천과정의 분기는 앞서 언급한 문헌기록에 나타난 장법과 화장묘 구조의 유형분류, 장골기의 형식학적 특징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I기는 6세기 후엽 ~ 7세기 후엽으로 왕도에서 화장묘가 등장하는 등장기이다. 문헌기록을 분석한 결과 I기에 화장한 인물은 6세기 후엽의 해공과 삼국 통일 직전인 7세기 중엽의 연광과 자장 그리고 7세기 후엽의 문무왕이 해당된다. 자장과 문무왕의 유해 처리방식을 추정할 결과, 장골과 산골이 확인된다. I기에 속하는 유적은 왕도에서 확인되며, 동천동 산13번지 화장묘, 황남대총·천마총 봉토, 갑산리유적, 충효동고분군에서 확인된 화장묘가 해당된다.

화장묘의 입지와 분포를 살펴보면 평지와 산지에 조성되었음이 확인되며, 군집양상은 대부분 화장묘가 단독적으로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조 유형을 살펴보면 단일형인 IB형과 이중형인 IIB형이 등장한다. 이 중 시기가 가장 앞서는 경주 동천동 산 13번지 화장묘의 조성연대는 6세기 후엽으로 추정되며, 단일형인 IB형보다 복잡한 구조이다. 그러나 다소 복잡한 구조인 IIB형이 먼저 채택되었기 보다는 단순한 구조인 IB형이 먼저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에 장골기로 사용된 기종은 대체로 유개합과 파수부호 등이 확인되어 당시 생활용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골기의 표면에 시문된 문양으로는 음각으로 시문된 삼각집선문과 반원점문이 그대로 계승되었거나 도장으로 찍는 형태로 변형되었다. I기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문헌기록과 고고자료를 통해 왕도에서 화장묘가 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I기는 7세기 후엽 ~ 8세기 후엽으로 왕도와 지방에서 화장묘의 조성이 활발해지는 성행기⁶⁵⁾이다. 문헌기록을 분석한 결과 II기에 화장한 인물은 국왕이

⁶⁵⁾ , 『신라인의 삶과 불상 : 갑산사의 미륵보살상』, 『2014년 박물관 역사문화교실』10, 국립중앙박물관, 2014.

효성왕, 선덕왕, 원성왕 그리고 선종 승려인 신행선사, 육두품인 인장일길찬과 관초리부인이 해당된다. 이들의 유해처리방식을 추정한 결과, 장골과 산골이 확인된다. II기에 속하는 유적은 왕도와 지방에서 확인되며, 왕도에서는 조양동 화장묘, 동천동 출토 청동사리합,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내 학생복지관 부지유적, 화천리 산251-1유적 등이, 지방에서는 기장 명례유적, 울산 대안리유적, 보은 장신리유적, 영주 청구리고분에서 확인된 화장묘가 해당된다.

화장묘의 입지와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왕도와 지방에서 산지에 조성되었음이 확인된다. 군집양상은 왕도와 지방에서 5기 이상 화장묘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그룹을 형성한 형태가 확인된다. 지역별로 확인된 구조 유형을 살펴보면 왕도에서는 단일형인 IB형과 이중형인 II A·B·C형의 다양한 구조로 화장묘가 조성되며, 지방에서는 단일형인 IB형과 이중형인 II C형을 제외한 II A·B형의 구조유형이 등장한다. 주로 IB형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 시기에 장골기로 사용된 기종은 왕도와 지방 간의 차이가 확인된다. 왕도에서는 생활용기가 사용된 예도 있지만 당시 수입품인 당삼채삼족호와 전용(專用)장골기인 연결고리유개호를 제작하여 장골기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지방에서는 대체로 완, 유개합, 유개대부완 등이 장골기로 사용된 예가 확인되어 생활용기를 전용(轉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왕도와 지방에서 확인된 장골기의 표면에 시문된 문양으로는 수적형문과 연속마제형문 등이 장식되었다. II기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왕도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화장묘가 등장하는 점과 장골기의 기종변화에 있어 왕도에서 전용(專用)장골기가 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II기는 9세기 전엽 ~ 10세기대로 왕도와 지방에서 화장묘의 조성이 전개되며,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장묘의 조성이 줄어들면서 쇠퇴해가는 쇠퇴기이다. 문헌기록과 금석문을 분석한 결과 III기에 화장한 인물은 국왕이었던 진성왕, 경명왕, 효공왕, 신덕왕 그리고 선종 승려인 징효대사가 해당된다. 이들의 유해처리방식을 추정한 결과, 국왕들은 산골을 실시하였으며, 징효대사는 화장한 후에 석조부도(石造浮屠)를 건립하여 안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III기에 속하는 유적은 왕도와 지방에서 확인된다. 왕도에서는 전(傳) 민애왕릉 주변 출토 “원화 10

66/8 전엽 이후로 추가합장이나 불교의 확산과 관련하여 매장관념의 변화로 중·소형 석실의 축조가 줄어들거나 대형석실 중 왕릉급 석실은 여전히 축조가 이루어지는 이원적 전개양상이 확인된다.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화장의 수가 많아지며 서서히 횡혈식석실은 소멸하였을 것이다(이혜정, 「경주지역 횡혈식 석실의 등장과 전개」, 『嶺南考古學報』65, 嶺南考古學會, 2013, 111~112쪽).

”명 장골기, 화곡리 화장묘,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내 학생회관 신축부지유적 등이, 지방에서는 대전 용계동유적, 공주 정지산유적, 울산 천소유적, 창원 다호리유적, 합천 영창리유적, 고성 송학동고분군 등에서 확인된 화장묘가 해당된다.

화장묘의 입지와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왕도와 지방에서 II기와 마찬가지로 산지에 조성되었음이 확인된다. 군집양상은 왕도에서는 대체로 단독적으로 위치하고 있으나 지방에서는 II기와 마찬가지로 화장묘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그룹을 형성한 예가 경상도와 충청도에서 확인된다. 지역별로 확인된 구조유형을 살펴보면 왕도에서는 단일형인 IB형과 이중형인 IIA형을 제외한 IIB·C형이, 지방에서는 단일형인 IB형과 이중형인 IIA·B형의 구조인 화장묘가 조성된다.

이 시기에 장골기로 사용된 기종은 왕도와 지방 간의 차이가 있으나 더욱 심화된다. 왕도에서는 연결고리유개호가 다수를 차지한다. 동국대 교내 학생회관 신축부지유적에서 출토된 외·내용기로 유개단경호와 장경호가 사용되었는데, 장경호의 덮개로 중국제 청자를 사용하였다. 지방에서는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유개대부완, 유개옹, 유개완, 유개합 등을 장골기로 사용하였다. 왕도와 지방에서 확인된 장골기의 표면에 시문된 문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겨진 예가 적어지고 대부분 무문화가 진행되어 나타난다. III기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지방에서 다수의 화장묘가 집단적으로 군집하여 확인된 예와 왕도와 지방에서 장골기로 사용된 기종이 II기와 같이 유지하였으나 세부적으로 그 차이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3. 피장자의 성격

통일신라시대 화장은 왕과 승려, 그리고 육두품 계층이 장법으로 채용하였다. 이는 통일신라시대의 화장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일부 확인되었다. 다만 고고자료만을 통해 화장묘 피장자의 성격을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문헌기록과 화장묘의 제양상을 통해 살펴본다면 어느 정도 피장자에 대한 성격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피장자의 성격을 밝히는데 있어 장법은 중요한 요소라 생각된다. 장법은 시대와 지역 그리고 민족 등에 따라 여러 요소들이 조합되어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화장의 절차와 이에 필요한 물품 등을 통해 대략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화장에 관련된 절차는 문무왕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 이를 유추해보면 당시 임종 이후 뜰에 장작을 쌓고 화장을 거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노천화장이라 할 수 있다. 노천화장의 능률을 감안해 볼 때 대량의 장작과 이를 장시간 태우는

많은 일손이 필요했을 것으로⁶⁷⁾ 추정된다. 특히 인간의 몸을 잘 화장하기 위해서는 대개 약 1톤 정도의 마른 나무를 태워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 당시 피장자는 대량의 장작을 확보⁶⁸⁾하기 위한 경제력과 장례를 치르기 위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계층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시대 화장묘에서 확인된 인골에 대한 색조 분석을 통해 해당 인골들이 1200℃이상의 고온에서 화장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화장용 가마의 존재를 추정한 예⁶⁹⁾가 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 만약 이와 같은 경우 대량의 장작 공급문제와 화장을 위한 가마 확보 등의 이유를 통해 볼 때 피장자는 위에서 언급한 계층과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화장묘의 입지 및 구조와 장골기의 구성을 통해 피장자의 성격에 대해 대략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화장묘의 입지와 함께 검토해 본 결과 화장묘의 근접양상 중 왕도에 위치한 화천리 산251-1유적 내에 통일신라시대의 분묘유구와 생산유구가 구역을 나누어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요지 주변의 분묘시설의 경우 요지를 운영하던 공인들의 매장공간일 경우와 분묘시설에 부장되는 부장품을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인근에 요지를 구축한 경우로⁷⁰⁾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전자로 보아 생산유구인 가마 주변에서 확인된 화장묘의 경우 가마를 운영하던 공인들의 매장공간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화장묘의 구조와 함께 검토해 본 결과, 피장자의 유해처리방식에서 산골(散骨)과 장골(藏骨)로 구분되지만 장골을 하였을 때 화장묘의 구조를 통해 계층차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화장묘의 유형별 비율을 분석한 결과 왕도와 지방에서 확인된 화장묘의 구조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두 지역 간 피장자의 계층차를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동시기에 각 지역 집단 내에서 화장묘의 구조 간의 차이가 확인된다. 지방인 대전 용계동유적에서는 동시기의 단일형과 이중형 화장묘가 군집되어 확인된 점을 볼 수 있다. 수혈 내부에 장골기를 안치하는 IB형과 석곽 내부에 장골기를 안치하는 II A형, 그리고 수혈 내부에 외·내호를 안치하는 II B형의 구조적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집단 내에서 피장

⁶⁷⁾ , 앞의 논문, 2007, 194쪽 참조.

⁶⁸⁾ 『三國史記』, 『三國遺事』 및 『東京雜記』등 역사 기록에 의하면 신라인들이 경주 주변에 의도적으로 많은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숲을 조성한 이유는 홍수를 대비한 堤防蔽로 이용한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강봉원, 「경주 북천의 수리에 관한 역사 및 고고학적 고찰」, 『한국 역사 고고학 연구』, 학연문화사, 2013, 195~196쪽). 이를 통해 당시 화장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장작을 확보하기 위해서 왕도 내의 숲을 비롯하여 인근지역의 산과 구릉지에서 나무들을 베어 화장용 장작을 조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⁶⁹⁾ 김호상·김재현, 앞의 논문, 2005, 308쪽 ; 하대룡, 앞의 논문, 2012, 390쪽.

⁷⁰⁾ 신희림, 『통일신라시대 토기 생산체계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48쪽.

간의 계층차를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생각된다.

장골기의 기종과 함께 검토해 본 결과 피장자는 기본적으로 유골을 보관할 수 있는 장골기를 안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였다고 생각된다. 앞서 왕도와 지방에서 확인된 장골기의 재질, 기종 등이 차이가 있다는 점⁷¹⁾을 확인하였다. 이는 화장묘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두 지역 간 피장자의 계층차를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특히 지방에서는 생활용기를 장골기로 전용(轉用)하여 사용한 경우가 많아 피장자 계층이 왕도의 피장자 계층보다 아래에 위치한다고 생각된다. 왕도에서는 장골기로 중국제 도자기를 사용한 예가 확인된다. 특히 조양동 화장묘의 경우 고급용기인 당삼채삼족호가 장골기로 사용된 점에서 피장자가 수입품을 사용하였을 정도로 특수한 계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중국제 청자완이 장골기의 뚜껑로 사용된 예로 동국대 교내 학생회관 신축부지유적의 화장묘와 수습자료인 경주 배동 출토 장골기⁷²⁾를 들 수 있다. 특히 배동 출토 장골기의 내호로 청자호가 사용되었으며, 장사 동관요 제품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청자완 등 중국제 도자기가 사찰에서 사용된 사례⁷³⁾가 있어 그 예로 보아 피장자가 승려 계층일⁷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왕도에서만 사용된 장골기로 연결고리유개호가 확인된다. 이를 통해 생활용기가 아닌 전용(專用)장골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장골기는 다양한 기종이 사용되었으나 연결고리유개호는 대량으로 생산되기 보다는 피장자나 그 가족들이 장인에게 주문하여 특수 제작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하므로 피장자는 유력층으로 생각된다.

셋째, 왕도와 지방의 화장묘에서 인골이 확인되어 피장자의 성별과 연령 등에 대해 명확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왕도에서는 동국대 경주 캠퍼스 교내 학생복지관 부지유적, 화천리 산251-1유적, 화곡리 화장묘 등에서 인골이 확인되었다. 특히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내 학생복지관 부지유적의 경우

71) 제작의 경우 고급 용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활용기를 생산할 때보다 많은 과정을 거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많은 재화가 필요했을 것이며 보다 화려하게 제작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72) 강경숙, 「慶州 拜里出土 土器骨壺小考」,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2, 一志社, 1987, 215~227쪽.

73) 입적 후 다비를 거행한 정호대사 절증이 머무른 興寧禪院址를 최근 시굴조사한 결과, 흥녕선원의 사역과 가람배치 등 기초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1·2차 조사에서 출토된 도자기 중 羅末麗初期 중국산 越州窯系 해무리굽 靑磁碗이 출토되었다(江原文化財研究所, 『寧越 興寧禪院 1·2次 試掘調査 報告書』, 2008, 133~142쪽).

74) 청자완은 당시 고급품으로 사원에서 승려들이 사용하였던 기종으로 생각되며, 당시 승려층과 유력한 신도들이 火葬한 후 청자완을 장골기로 轉用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61, 73호 화장묘의 내부에서 화장된 인골이 확인되었다. 이 두 인골을 분석한 결과 61호 화장묘의 피장자 성별에 대해 남성이며, 연령은 성년후반(30대) 이상으로 추정하였다. 73호 화장묘의 피장자는 판정기준이 되는 부위가 부족하지만 성별에 대해 남성일 가능성이 크며, 추정연령은 숙년이상으로 판정⁷⁵⁾하였다. 또한 9세기대로 추정되는 화곡리 화장묘의 경우 석함 내부에 안치된 연결고리유개호의 내부에 화장된 인골이 담겨 있었다. 이 인골은 성별이 판정기준이 되는 부위가 출토되지는 않았지만 출토인골의 형상 등을 볼 때 연령이 성인이라 추정⁷⁶⁾된다.

지방에서는 강릉 입암동유적의 화장묘에서 인골이 확인되었다. 화장묘 내부에서 다양한 부위의 뼈가 화장된 후 잘게 부서져 담긴 장골기가 확인되었는데, 인골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남아 있는 뼈의 크기가 매우 작아 어느 부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쉽지 않았다. 성별을 경우 오른쪽 엉덩뼈에 귓바퀴면앞고랑(preauricular sulcus)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어 여성으로 판정⁷⁷⁾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당시 화장묘의 피장자는 성별에 있어서 남녀 구분 없이 화장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장자가 여성인 경우 유해처리방식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문헌 자료를 통해 제51대 국왕인 진성왕과 『감산사 미륵보살입상』명문에 나타난 김지성의 어머니인 관초리의 화장 사례를 통해 당시 여성이 사망한 후 화장을 하였다는 점에서 인골 분석결과와 공통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연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분석 자료를 통해 당시 성인을 화장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삼국시대에 소아를 화장한 사례⁷⁸⁾가 있어 통일신라시대에도 소아를 화장한 경우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

I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고고학 연구 분야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통일신라시대의 화장묘를 검토하였다. 그 연구 결과를 종합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⁷⁵⁾ 김재현, 앞의 논문, 2005, 300~307쪽.

⁷⁶⁾ 安部みき子, 「慶州 花谷里 火葬墓의 인골」, 『新羅文物研究』3, 국립경주박물관 2009.

⁷⁷⁾ 김이석 외, 「고려시대 사람 뼈에 대한 인류학적 분석을 통해 본 해당 시기 뼈대모양의 향후 구축전망」, 『대한체질인류학회지』23-3, 대한체질인류학회, 2010, 116~118쪽.

⁷⁸⁾ 화천 원천리유적 2지구 1호 수혈 내에서 다량의 목탄과 함께 인골이 확인되었다. 해당 유구 내에서는 유리제 耳墻, 금동계 이식이 출토되었다. 수혈 내에서 화장한 소아의 인골로 밝혀졌다(하대룡, 앞의 논문, 2012, 395쪽).

단일형인 IA형을 제외한 I 유형(75%)과 이중형인 II 유형(25%)이 모두 사용되었다. 지방에 비해 이중형인 II 유형이 다수 확인되어 당시 유행한 화장묘 구조로 판단된다. 지방에서는 이중형인 II 유형은 5%로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대부분 단일형인 I 유형(95%)이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그 중 단순한 구조인 IB형이 지방에서 유행한 화장묘 구조로 판단되므로 두 지역 간의 지역성이 드러난다.

장골기로 사용한 용기는 왕도와 지방에서 유개완, 유개합, 유개대부완 등 공통되는 기종이 사용되었으며, 왕도에서는 전용장골기인 연결고리유개호와 고급용기인 연유도기도 사용하였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생활용기를 장골기로 전용(轉用)하여 사용하였다. 장골기의 표면에 시문된 문양 또한 두 지역 간의 차이가 확인된다. 이를 통해 당시 장골기의 제작과 기종, 재질 등의 선택에 있어 피장자의 신분에 따른 규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장골기의 보호 덮개는 토기류, 기와류, 석재류, 전류 등이 사용되었는데, 그 중 건축부재인 무문전과 기와를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무덤을 ‘사자(死者)의 집’이라 보아온 관념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화장묘의 조성배경은 화장을 실시한 배경과도 관련된다. 문헌기록을 분석한 결과 후손(後孫)이 없는 왕족(王族)의 경우, 화장 할 것을 유언(遺言)으로 남긴 경우, 질병(疾病)으로 인해 흥거(薨去)한 경우, 개인의 종교관 및 후손(後孫)이 불교(佛敎)를 신봉하여 화장을 실시한 경우로 구분된다. 통일신라시대에는 화장이 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현세적 관점에서 죽음을 인식하여 화장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며, 개인이 장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선택하기 보다는 특수한 상황일 경우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화장묘의 변천과정은 6세기 후엽 또는 7세기대에 들어와 왕도에서 화장묘가 등장하였다. 8세기대에 왕도에서 여러 유형의 구조와 전용장골기가 확인되어 이 시기에 화장이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8~9세기대에 지방까지 보급되면서 화장묘의 조성이 이루어진다. 8세기 후엽부터는 화장묘의 구조 및 장골기의 구성에서 왕도와 지방 간의 차이가 확인되며, 9세기에 들어오면 그 차이가 깊어진다. 또한 군집하여 화장묘가 조성된 예가 지방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화장묘를 질서 있게 집단적으로 조성하는 모습은 9세기대의 특징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피장자의 성격은 문헌자료와 장법, 화장묘의 구조 및 장골기의 구성, 인골의 출토여부 등을 통해 추정하였다. 화장묘의 피장자들은 일반민이 아닌 당시 일정 이상의 경제적인 능력과 신분적인 지위를 가진 유력층으로 추정되며, 인골 분석

통해 당시 남녀구분 없이 화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왕도와 지방에서 확인된 통일신라시대 화장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에 그 의미를 두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에서 미진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전개과정에서 누락된 부분 및 오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향후 다양한 신자료의 확보와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앞으로 화장묘에 대한 구체적인 성격이 규명되기를 기대해본다.

■ 2015년 7월 30일 | 심사완료일 2015년 8월 14일 | 게재확정일 2015년 8월 29일 ■

표 3. 왕도 화장묘 속성 일람표

	유적		일지		구조						장골기류					비고
					IA	IB	IC	IIA	IIB	IIC	발	병	웅	완	합	
경주 (왕도)	경주 충효동고분군	3호 봉토	산지	구룡사면부											●	
		6호 석실	산지	구룡사면부											●	
	경주 남산 판석사벽 방형화장묘	-	산지	구룡사면부												
	경주 동천동 출토 청동방형사리함	-	산지	구룡사면부						●						석함, 청동사리함
	경주 조양동 화장묘	-	산지	구룡말단부						●						●
	천마총 봉토	봉토	평지	-		●										●
	황남대총 북분 봉토	봉토	평지	-		●									●	
	“元和十年”銘 藏骨器	-	산지	구룡정상부		●										●
	동국대 교내 학생회관 신축부지	-	산지	구룡사면부					●							●
	경주 동천동 산13번지 화장묘	-	산지	구룡사면부				●							●	유개고배
	경주 화곡리 화장묘	-	산지	구룡말단부						●						●
	동국대 교내 자연과학관 배수로부지	5호	산지	구룡사면부		●										●
	경주 황성동 고분군 (545번지)	25호 토광	평지	-		●						●				
	동국대 교내 학생복지관부지	51호	산지	구룡사면부		●										●
61호		산지	구룡사면부				●								●	
62호		산지	구룡사면부			●										

	유적		입지		구조						장폴기류					비고	
					I A	I B	I C	II A	II B	II C	발	병	옹	완	합		호
경주 (왕도)	동국대 교내 학생복지관부지	68호	산지	구룡사면부				●						●			
		73호	산지	구룡사면부				●									
	경주 갑산리유적	화장묘	산지	구룡정상부		●								●			
	경주 황성동 석실분 906-5번지	2호 매납	평지	-		●										●	
	경주 충효동 송화산 옥녀봉 화장묘	1호	산지	구룡정상부		●					●						
		2호	산지	구룡정상부		●								●			
	경주 화천리 산251-1유적	3호 석곽	산지	구룡말단부			●										
		4호 석곽	산지	구룡말단부			●										
		5호 석곽	산지	구룡말단부			●										
		1호	산지	구룡말단부		●						●					
		2호	산지	구룡말단부		●										●	
		3호	산지	구룡말단부		●								●			
		4호	산지	구룡말단부		●								●			
		6호	산지	구룡말단부		●										●	
		7호	산지	구룡말단부		●								●			
		8호	산지	구룡말단부		●								●			
	경주 석계리유적	1호	산지	구룡말단부		●								●			
		2호	산지	구룡말단부		●								●			
	계						20	4	4	1	3	1		2	9	3	13

	유적		입지		구조						장골기류					비고		
					IA	IB	IC	IIA	IIB	IIC	발	병	옹	완	합		호	
충청도	보은 장신리유적	3호	산지	구릉정상부		●								●				
		4호	산지	구릉정상부		●						●		●				
전라도	장수 동촌리고분	1호	산지	구릉정상부		●								●				
		2호	산지	구릉정상부		●						●						
경상도	대구 각산동 912-6번지유적	1호	산지	구릉말단부		●								●				
		1호	산지	구릉정상부		●								●				
	청도 사촌리유적	2호	산지	구릉정상부		●											●	
		김천 모암동유적	1호	산지	김릉정상부		●							●				
	성주 장학리 장골유적	1호	산지	구릉능선부				●						●				
		2호	산지	구릉능선부		●								●				
	영주 청구리고분	화장묘	산지	구릉사면부				●								●		
	경산 대원리유적	1호	산지	구릉능선부		●								●				
	울산 효문동 죽전곡유적	2호	산지	구릉사면부		●								●				
	울산 천소유적	1호	산지	구릉말단부		●										●		
		2호	산지	구릉말단부		●										●		
	울산 조일리유적	1호	산지	구릉정상부		●										●		
		2호	산지	구릉정상부		●									●			
	울산 천상리 평천유적	1호	산지	구릉사면부		●												●
	울산 신천동 냉천유적	I-1호	산지	구릉사면부		●									●			
		I-2호	산지	구릉사면부		●									●			
III-1호		산지	구릉사면부		●									●				
울산 인보리 번답들유적	1호	산지	구릉능선부		●									●				

	유적		입지		구조						장골기류					비고		
					IA	IB	IC	IIA	IIB	IIC	발	병	응	완	합		호	
경상도	울산 교동리 192-37유적	1호	산지	구릉능선부		●											●	
		1호	산지	구릉정상부		●												
	울산 대안리유적	2호	산지	구릉정상부		●												
		3호	산지	구릉정상부		●												
		4호	산지	구릉정상부		●												
		5호	산지	구릉정상부		●												
		6호	산지	구릉정상부		●								●				
		7호	산지	구릉정상부		●												
		8호	산지	구릉정상부		●												
		9호	산지	구릉정상부		●												
		10호	산지	구릉정상부		●												
		11호	산지	구릉정상부		●												
		12호	산지	구릉정상부		●								●				
	13호	산지	구릉정상부		●													
	울산 상연암유적	1호	산지	구릉능선부		●											●	
		1호	산지	구릉정상부		●												
	울산 효문동 산68-1유적	2호	산지	구릉정상부		●												
		3호	산지	구릉정상부		●												
		4호	산지	구릉정상부		●												
		5호	산지	구릉정상부		●												
		6호	산지	구릉정상부		●												
		7호	산지	구릉정상부		●												●
		8호	산지	구릉사면부		●												
		9호	산지	구릉사면부		●												
		10호	산지	구릉사면부		●												
		11호	산지	구릉사면부		●												
		12호	산지	구릉사면부		●												
		13호	산지	구릉사면부		●												
		14호	산지	구릉사면부		●												

	유적		입지		구조						장골기류						비고			
					IA	IB	IC	IIA	IIIB	IIIC	발	병	응	완	합	호				
경상도	울산 덕신리 572-6유적	1호	산지	구릉정상부		●									●					
	부산 연산동고분군	화장묘	산지	구릉능선부		●												●		
	기장 명태유적	IX-1호	산지	구릉정상부				●							●					
	기장 하장안유적	1호	산지	구릉사면부		●									●					
	창원 다호리유적	B26-1	산지	구릉사면부					●						●					
					3호	산지	구릉사면부		●						●					
					4호	산지	구릉사면부		●								●			
					5호	산지	구릉사면부		●								●			
	창녕 우강리고분군	1호	산지	구릉정상부		●												●		
		2호	산지	구릉정상부		●									●					
	합천 영창리유적	1호	산지	구릉정상부		●									●				鐵塊	
		2호	산지	구릉정상부		●									●					
		3호	산지	구릉정상부		●												●		
		4호	산지	구릉정상부		●									●					
		5호	산지	구릉정상부		●									●					
	고성 송화동고분군	IA-4-①	산지	구릉정상부		●									●					
		IA-4-②	산지	구릉정상부		●									●					
		IA-4-③	산지	구릉정상부		●									●					
		IA-4-④	산지	구릉정상부		●									●					
		IA-4-⑤	산지	구릉정상부		●									●					
	진주 무촌리유적	A호	산지	구릉사면부		●									●					
		B호	산지	구릉사면부		●									●					
		C호	산지	구릉사면부		●												●		
		D호	산지	구릉사면부		●									●					
		E호	산지	구릉사면부		●									●					
		F호	산지	구릉사면부		●									●					
G호		산지	구릉사면부		●															

	유적		입지		구조						장폴기류					비고		
					IA	IB	IC	IIA	IIB	IIC	발	병	옹	완	합		호	
경상도	진주 무촌리유적 (2구역)	I-166	산지	구룡사면부		●											●	
		II-48	산지	구룡사면부		●						●						
	진주 청촌리유적	II-49	산지	구룡사면부		●							●					
		68호	산지	구룡사면부		●							●					대각부
	의령 운암리유적	1호	산지	구룡사면부		●								●				
	거창 개봉고분군	화장묘	산지	구룡정상부		●							●					
계					6	96		5	3			2	9	74	11	11		

참고문헌

< >

『三國史記』, 『三國遺事』

<국내>

- 강인구, 「百濟의 火葬墓 -새로운 百濟墓制-」, 『考古美術』115, 한국미술사학회, 1972.
- _____, 「百濟의 火葬墓(續)」, 『美術資料』17, 국립중앙박물관, 1974.
- _____, 『百濟古墳研究』, 一志社, 1977.
- 정길자, 「新羅藏骨容器研究」, 『韓國考古學報』8, 韓國考古學研究會, 1980.
- 한병삼, 「土器」, 『韓國의 美』5, 中央日報社, 1981.
- 정길자, 「高麗時代 火葬에 대한 考察」, 『釜山史學』7, 부산사학회, 1983.
- 김원룡, 「統一新羅土器」, 『韓國史論』15, 國史編纂委員會, 1985.
- 정길자, 「韓國佛僧의 傳統葬法研究」, 『崇實史學』제4집, 숭실대학교 사학회, 1986.
- 강경숙, 「慶州 拜里出土 土器骨壺小考」, 『三佛金元龍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2, 一志社, 1987.
- 김원룡, 『韓國考古學概說』, 一志社, 1989.
- 박방룡, 「新羅十二支銘骨壺에 관한 小攷」, 『新羅文化』7,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원, 1990.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0, 1991.
- 김원룡, 「신라 통일시대의 고분」, 『한국의 고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 김재현 외, 「상촌리유적 출토인골에 대하여」, 『晉州上村里先史遺蹟』, 東亞大學校 博物館, 2001.
- 한국고전용어사전 편찬위원회, 『한국고전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 구미래, 「불교 전래에 따른 火葬의 수용양상과 변화요인」, 『실천민속학연구』4, 실천민속학회, 2002.
- 엄기표, 「新羅 僧侶들의 葬禮法과 石造浮屠」, 『文化史學』18, 한국문화사학회, 2002.
- 정형철, 「고려시대 火葬에 대한 재검토」,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엄기표, 「高麗時代 石造浮屠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山本孝文, 「百濟 火葬墓 대한 考察」, 『韓國考古學報』50, 韓國考古學會, 2003.
- 홍보식, 「통일신라의 장·묘제」, 『第28回 韓國考古學會 全國大會：統一新羅 考古學』, 韓國考古學會, 2004.
- 김성태, 「建物址 出土 地鎮·鎮檀具의 檢討」, 『영남문화재연구』18, 영남문화재연구원, 2005.
- 김호상·김재현, 「新羅王京 所在 火葬墓의 構造와 出土人骨 分析」, 『新羅文化祭 學術發表論文集』2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5.
- 홍보식, 「통일신라 연결고리유개호의 발생과 전개」, 『韓國上古史學報』51, 韓國上古史學會, 2005.
- 김재현, 「부산, 경남지역 고대 장승문화의 정체성과 접변양상」, 『석당논총』37,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06.
- 김창호, 「신라 橫穴式石室墳의 등장과 소멸」, 『新羅史學報』8, 신라사학회, 2006.
- 석병철, 「統一新羅 慶州地域 火葬墓 研究」, 경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_____, 「경주지역 新羅 火葬墓에 대하여」, 『新羅史學報』9, 新羅史學會, 2007.
- 선석열, 「신라의 왕위계승 원리」, 『역사와 세계』32, 효원사학회, 2007.
- 김시덕, 「일본의 화장, 불교식 장례 : 그 흐름과 변화」, 『불교학연구』16, 불교학연구회, 2007.
- 유초하 외, 『한국인의 생사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7.
- 최은아, 「경주지역 건물지의 鎮檀具에 관한 고찰」, 『문물연구』11, (재)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재)한국문물연구원, 2007.
- 홍보식, 「신라의 화장묘 수용과 전개」, 『韓國上古史學報』58, 韓國上古史學會, 2007a.
- _____, 「통일신라 화장묘 造營層과 地方 擴散」, 『考古廣場』創刊號, 釜山考古學研究會, 2007b.
- 이동현, 「인화문 유개완 연구 : 경주지역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오가영, 「統一新羅時代 印花文陶器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차순철, 「통일신라의 화장과 불교와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고찰 : 造寺·造塔신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文化財』41-1,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 김성구, 「蔚山의 신라기와」, 『울산대곡박물관개관기념 공동학술대회 : 유적과 유물로 본 울산의 생산과 유통』, 울산광역시·한국문화보호재단, 2009.
- 이현숙, 「질병, 치료, 종교 : 한국 고대 불교의학」, 『한국사상과 문화』48, 한국사

, 2009.

- 한도식, 「慶州 花谷里 火葬墓」, 『新羅文物研究』3, 國立慶州博物館, 2009.
- 김이석 외 9명, 「고려시대 사람 뼈에 대한 인류학적 분석을 통해 본 해당 시기 뼈대모양의 향후 구축전망」, 『대한체질인류학회지』23-3, 대한체질인류학회, 2010.
- 윤상덕, 「6~7세기 경주지역 신라토기 편년」, 『한반도 고대문화 속의 울릉도 : 토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10.
- 최신영, 「통일신라시대 火葬墓 연구 : 울산지역의 최근 성과를 중심으로」, 『大東考古』5, 대동문화재연구원, 2010.
- 김재현, 「제주 삼화택지개발지구 가-2구역(2차)내 유적 출토 인골에 대한 소견」, 『제주 삼화지구유적 : 가-2지역(2차)내 유적』, 동양문물연구원, 2011.
- 최병현, 「신라 후기양식토기의 편년」, 『嶺南考古學』59, 嶺南考古學會, 2011.
- 한정호, 「통일신라시대 蠟石製舍利壺의 발생과 전개에 대한 고찰」, 『古文化』77,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11.
- 신효림, 「통일신라시대 토기 생산체계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이근직, 『新羅王陵研究』, 학연문화사, 2012.
- 이지희, 『統一新羅時代 鉛釉陶器 研究』, 忠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2.
- 채미하, 「한국 고대의 죽음과 喪·祭禮」, 『한국고대사연구』65, 한국고대사학회, 2012.
- 하대룡, 「인골분석을 통한 장례 방식의 검토 : 불교식 火葬 이전의 선사·고대 火葬 문화의 특성」, 『제3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논문집 : 농업의 고고학』, 한국고고학회, 2012.
- 강봉원, 「경주 북천의 수리에 관한 역사 및 고고학적 고찰」, 『한국 역사 고고학 연구』, 학연문화사, 2013.
- 김석기, 「慶州 出土 統一新羅 後期 壺에 關한 研究」, 경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박방룡, 『新羅都城』, 학연문화사, 2013.
- 오셋별, 「지진구와 지진의례 : 건물지 지진의례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32,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 이혜정, 「경주지역 황혈식 석실의 등장과 전개」, 『嶺南考古學報』65, 嶺南考古學會, 2013.
- 홍보식 외 4명, 『統一新羅時代 歷年代 資料集』, 학연문화사, 2013.

- , 「신라인의 삶과 불상 : 감산사의 미륵보살상」, 『2014년 박물관 역사문화 교실』10, 국립중앙박물관, 2014.
- 박천수, 「신라와 일본」, 『新羅考古學概論』上, 진인진, 2014.
- 정효운, 「“삼국사기”에 나타난 한국인의 사생관」, 『동북아문화연구』40,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4.
- 홍보식, 「신라 도성의 건설과 구조」, 『삼국시대 고고학 개론』1, 진인진, 2014.

<국외>

- 齊藤忠, 「新羅火葬骨壺考」, 『考古學論叢』2, 1936.
- , 「新羅文化論考」, 吉川弘文館, 1973.
- 森本徹, 「韓國における初期火葬墓の研究」, 『青丘學術論叢』14, 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1998.
- 小田裕樹, 「한일 고대火葬墓의 비교연구 : 일본 고대火葬墓의 系譜를 둘러싸고」, 『한일문화재논집』II,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 安部みき子, 「慶州 花谷里 火葬墓의 인골」, 『新羅文物研究』3, 국립경주박물관, 2009.

*지면관계상 발굴조사보고서는 생략하였습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Cremation Grave in the Unified Silla Period

Son, Byeong-Kuk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cremation grave which possesses many distinct characteristics among various methods of burial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Despite the fact that there have been many cases of cremation graves in historic ruins from the unified Silla period identified, compared to other periods, there had not been sufficient comprehensive studies conducted. based on new data and existing study results, an analysis was made of the location and structural type of the cremation graves from unified Silla period. And an understanding of detailed characteristics and regionality were obtained by analyzing development of cremation and others through literature materials. Based on this, we sought to draw a comprehensive assumption regarding the development background and transition process as well as character of the buried persons.

Structural type of cremation grave from the unified Silla period were classified into 6 types by analyzing confirmed cases in each regions. Largely, it can be classified into singular type(type I) and dual type(type II) and the singular type can be subdivided into pit type(IA), earthenware type(IB), stone lined type(IC), and the dual type can be subdivided into stone coffin type(IIA), earthenware type(IIB), and stone case type(IIC).

In terms of the transition process of cremation grave, it entered towards the end of the 6th century or the 7th century and cremation graves started to appear in the capital, and there were various structural types and exclusive cremation pottery found from the 8th century which leads to an assumption that cremation was prevalent during this period. In addition, during the 8th-9th century, the construction of cremation graves expanded

out to even the countryside. Starting towards the end of the 8th century,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structure and material quality of cremation pottery between the capital and the countryside and those differences became further intensified entering the 9th century. Images of constructing cremation graves in groups in county sides via cases of gathering in countrysides being distributed while maintaining the cremation grave in regular intervals can be seen as a characteristic of the 9th century.

The character and class of the buried persons indicated in the literature records can be summarized as kings, Buddhist monks, and yookdoopoom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ethod of burial, structure of the cremation grave and composition of the cremation pottery, excavation of human bone, it can be assumed that the buried were people of power above a certain level of economic power and status, as opposed to general public and the literature records and human bone analysis data indicate that the cremation was performed without distinction of gender.

Key Words : Unified Silla Period, Funeral, Type of tomb, Cremation Grave
(火葬墓), Funeral urn(藏骨器)